

환율 잡고 시간 벌었다… 추가 금리 인상 ‘물가·내수’에 달려

한은, 기준금리 3% 동결

선제 금리 인상으로 정책 여유 확보
원·달러 환율 두 달 새 60원가량 하락
내년 근원물가 상승 압력 여전히 부담
반도체 호황의 소비·임금 확산 주목
주택대출 증가·일부 집값 상승 경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선제 인상과 환율 안정으로 추가 지표 확언할 여유는 확보했지만, 내년 물가 압력과 주택시장 위험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앞선 긴축이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반도체 호황의 내수 과급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다음 금리 결정을 가를 전망이다.

◆ 선제 인상으로 확보한 여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린 뒤 인상 효과를 점감하기로 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선제 대응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이나 시장 변동에 쫓기지 않고 국내 여건에 맞춰 정책을 펴 여유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환율 안정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회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과 수입물가 억제, 금융안정 효과를 들며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정책 여유를 보여주는 대목은 환율이다. 한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 26일 1384.8원에서 10월 21일 1325.2원으로 59.6원 하락했다.

신 총재는 “8월 간담회 이후 환율 변동성이 줄었다”고 평가하면서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비

교적 안정됐고 환율도 하향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환율 하락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개선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봤다. 환율 안정은 수입품과 원자재의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 외부 비용 상승이 국내 가격으로 옮겨가는 압력을 낮추면, 한은으로서는 앞선 긴축의 효과를 확인하며 추가 대응 시점을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신 총

재가 동결을 선제 대응의 결실로 평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주택시장에 남은 위험도 함께 봐야 한다. 신 총재는 선제 인상이 주택가격과 금융취약성지수의 상승 속도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기타대출 순상환으로 줄어든 가운데서도 주택관련대출은 증가했고, 서울 중저가 주택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오름세는 다시 확대됐다. 앞선 인상의 효과를 점감하는 과정에서도 주택 부문의 대출·가격 흐름은 계속 경계해야 하는 셈이다.

◆ 내수 회복이 다음 금리 변수

물가 전망은 긴축 기조 유지를 뒷받침한다. 신 총재는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인 2.5%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 비용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물가 압력이 다른 경로에서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 총재는 “수요 쪽의 압력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의 전이뿐 아니라 소득 여건 개선에서 나오는 수요 압력

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가 소비와 임금으로 넓게 퍼질수록 내수 회복의 지속성과 물가 압력을 함께 기능해야 한다. 한은이 물가 경로의 변수로 내수 개선 속도와 임금 상승세의 확산 정도를 명시한 이유다. 수출 호조 자체와 함께 가계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정도가 추가 인상의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다음 금리 판단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 자체와 함께 내수 과급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는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실제 지표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보여줄 자료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도 제시할 예정이다. 신 총재는 성장 등 여건을 고려하는 중기 대응 원칙 아래 내후년인 2028년 무렵 물가가 목표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금리 역시 새 지표에 따라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신 총재는 “채권시장에서 추정하는 금리를 참고한다”며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논의 본격화… 서학개미 ‘주식 교환비율’ 촉각

머스크, 양사 합병 가능성 공식화
스페이스X AI 성장에 기업가치 급등
테슬라 주주 프리미엄 20~35% 거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검토가 공식화되면서 양사 주주에게 적용될 교환비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사업을 앞세운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테슬라 주주가 합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상위 종목인 테슬라의 합병 논의인 만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관금액은 217억6734만달러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종목으로 꼽힌다. 스페이스X의 보관금액은 27억9634만달러(17위)로 집계됐다.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합병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스페이스X 3분기 실적 발표 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달러로, 합병이 성사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거래가 된다.

이후 블룸버그통신 등은 양사의 합병

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합병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리되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머스크의 사업 전반이 의회의 조사 대상에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억6900만달러(약 489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양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교환비율을 정하느냐다.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양사의 상대적 기업가치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받게 될 합병 후 지분율이 달라진다.

스페이스X는 올해 3분기 매출 145억 75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1% 성장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달러 적자에서 44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AI 관련 매출이 75억6000만달러로 늘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영향이다.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는 2027년 1분기 매출이 330억~3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3분기 매출의 약 2.3~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페이스X의 성장 가치가 기업가치에 높

게 반영될수록 테슬라 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비율이 불리해질 수 있어, 테슬라 주주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캐나다 RBC캐피탈마켓츠와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35% 수준의 프리미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덴 아이브스 요크빌 아이브스 파트너는 “이번 합병은 두 회사 모두에 있어 당연한 선택”이라면서도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하려면 “테슬라 주가가 550달러 수준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의 지배력 변화도 변수다. 머스크는 차등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스페이스X의결권의 약 85%를 보유하고 있지만 테슬라 의결권은 약 20% 수준이다. 합병 이후 지분 구조와 주식별 의결권 설계에 따라 머스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삼성전기·LG이노텍, 엔비디아와 동맹 강화… AI 시장 공략 속도

삼성전기, AI 반도체 기반 공급 본격화
엔비디아와 공동 투자 생산라인 확충
LG이노텍, 로봇용 첨단 센싱 기술 공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1일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LG이노텍도 이날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로봇용 센싱 솔루션을 공개하며 협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기와 엔비디아는 공동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삼성전기는 세종과 부산 사업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기판을 다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앞서 지난달 세종사업장 내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산공공장 증설에 4조2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투자 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다.

공급 품목은 엔비디아의 연산 칩셋용 기판과 데이터센터 내 칩 간 초고속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용 패키지기판

이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물량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관련 물량이 전체 패키지기판 생산능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기판 내부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실리콘 캐패시터를 내장하는 공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I 반도체용 기판은 면적이 넓고 층수가 높아 초미세 회로 구현과 열변형에 따른 휨 현상 억제가 중요하다.

LG이노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독

일 베를린에서 열린 ‘GTC Berlin’에서 엔비디아의 홀로스캔 센서 브리지(HSB) 기술을 적용한 3메가픽셀(MP) 카메라 모듈과 멀티모달 비전 시스템(MVS) 등을 공개했다.

HSB는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CPU)를 거치지 않고 AI 컴퓨터로 직접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피지컬 AI 시스템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용 비전 센싱과 로봇 핸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LG이노텍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플랫폼과 연결 가능한 센싱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GPU 기술 콘퍼런스(GTC)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